

허용기준안 마련 주민 의견 수렴 “사업 추진시 현장 먼저 살필 것”

무주군, 10월 5일 문화재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안) 공청회 개최

무주군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이하 허용기준)' 마련을 위한 주민공청회를 개최한다.

무주군에 따르면 2020년 11월 전라북도 문화재보호조례 전부개정 및 보물로 승격지정에 따라 기존 운영되던 허용기준을 조정하거나 마련해야 하는 무주군 내 지정문화재 중 국가지정문화재 무주 한중루와 전라북도 문화재자료 무주향교 대성전에 대한 허용기준(안) 관련 주민공청회를 다음달 5일 오후 전통문화의 집에서 개최한다.



무주군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마련을 위한 주민공청회를 개최한다. (사진은 지난 주민공청회 모습)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지정문화재 주변에 위치한 문화재와 더불어 보호될 필요성이 있는 주변환경으로서, 도시사가 문화재청장과 협의해 조례로 정한 지역을 일컬으며 문화재 지정 시 자동으로 설정된다.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와 전라북도 문화재보호 조례 제5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 규정에 따른 사항으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개발행위 등 문화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기준을 제시, 건축행위 등 개발사업 계획 시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자 설정·운용되고 있는 제도다.

관리단체인 기초지방자치단체인 무주군에서 문화재별 특성과 문화재 주변 개발행위 등을 검토하여 허용기준안을 마련하게 된다.

이날 개최되는 주민공청회는 지난 8월 9일부터 20일간 공고한 허용기준안 2건(무주 한중루, 무주향교 대성전)에 관한 것으로 지난달 18일 개최된 주민공청회 당시 주민참여 저조 등 민원 발생에 따른 것.

무주군청 문화체육과 문화재팀 임정희 팀장은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청취해 주민의견을 반영한 허용기준안을 추가로 마련할 계획"이라며 "주민들의 의견에 신중하게 귀를 기울여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문화재 지정현황과 건축행위 허용기준안 안내,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질

의·응답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의견이 있는 주민은 10월 31일까지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받아 무주군청 문화체육과로 소정의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문화재청 및 전라북도 문화재위원회에서는 군에서 작성한 허용기준(안)과 주민의견에 대해 현지 조사와 심의를 거쳐 허용기준을 고시하게 된다.

한편,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안은 무주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할 수 있으며, 무주군청 문화체육과를 직접 방문해 열람·확인할 수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볼거리·즐길거리 가득 ‘진안홍삼축제’로 오세요”

10월 7~10일 진안고원시장·마이산 북부서 3년 만에 대면행사로 개최

2022 진안홍삼축제'가 10월 7일부터 10일까지 진안고원시장과 마이산 북부에서 열린다.



진안홍삼축제 야간경관조명

올해는 3년 만에 현장 대면행사로 열려 코로나19로 지친 관광객들에게 건강과 힐링을 시간을 선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마이산 테마공원을 비롯한 축제장 주변에 야간경관조명을 대폭 확대해 눈길을 끈다.

축제 관계자는 "이번 진안홍삼축제를 통해 대한민국 유일 홍삼특구 진안과 진안홍삼을 널리 알리고, 축제장을 찾는 모든 이에게 아름다운 밤을 선사하고 싶다"며 "주간에는 가족단위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홍삼관련 콘텐츠로, 야간에는 화려한 야간경관으로 주간 볼거리가 풍성한 축제로 준비해

가고 있다"고 말했다.

2022 진안홍삼축제는 10월 7일 진안고원시장에서 군민노래자랑 예선을 시작으로, 8일 김완선, 서지오, 최성수가 출연하는 백세인생천년기운 콘서

트, 9일 홍진영, 현숙, 조항조 등이 출연하는 트로트페스티벌, 그 외 어린이 뮤지컬 구름빵, 키즈존, 홍삼김밥 등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로 펼쳐진다.

/진안=우태만 기자

최훈식 장수군수, 장수군 공설 장례식장·폐기물종합처리 시설 등 방문



최훈식 장수군수(사진)가 29일 장계면에 위치한 '장수군 공설 장례식장'과 '폐기물종합처리 시설'을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주민과 소통하는 행정을 통한 차질없는 사업추진과 운영을 주문했다.

군에 따르면 '장수군 공설 장례식장'은 장수군 장계면 장사로 1876 일대에 연면적 991.50㎡, 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됐으며, 1층은 사무실을 비롯한 안치실, 입관실 등의 시신 처리시설, 2층은 접객실 및 조리시설 등 문상 조문시설로 구성돼 10월 말 개소를 앞두고 있다.

최 군수는 "군민들의 숙원이었던 공

설 장례식장 운영으로 장수군 보건의료원 장례식장이나 인근지역 장례식장을 이용하던 장수군 북부권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설 장례식장의 빠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해 차질없는 준비를 담당부서에 주문했다.

또한 장계면 지역 내 폐기물종합처리 시설을 둘러보고 노후화된 시설의 개선과 운영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폐기물 소각시설 추가 설치사업 등의 빈틈없고 속도감 있는 추진을 강조했다.

최훈식 군수는 "각종 사업 추진 시 현장을 먼저 살피겠다"며 "현장·소통행정으로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는지 수시로 점검하며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효율적인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진안군,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 선호도 조사

진안군은 29일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 선정에 앞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10월 10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은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진안군 답례품에 대한 선호도와 기부금 활용처, 기부방향에 대한 의견을 파악해 진안군 고향사랑기부금 운영 방향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참여방법은 진안군 공식 SNS(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진안군청 홈페이지 고향사랑기부금 게시판을 통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또한 군은 10월 7일부터 10일까지 개최되는 2022 진안홍삼축제에서 고향사랑기부금 홍보 부스를 운영하면서 방문객을 대상으로 오프라인 설문조사도 병행한다.

군은 10월 말 확정예정인 답례품 선정에 이번 설문조사를 적극 반영할 예정이며, 고향사랑기부금의 활용처 발굴과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는데 참고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전춘성 군수는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기부자와 생산자 모두 만족할 수 있고 차별화된 답례품을 선정하도록 하겠다"며 "고향사랑기부금 활성화를 통해 지역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군민을 비롯한 모든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보건소, 건강체조발표회·마이산 건강걷기대회 개최

진안군 보건소(소장 송미경)는 군민의 건강증진과 건강생활실천 분위기 확산을 위해 홍삼축제 기간인 10월 9일 마이산북부 마이산 테마공원 행사장에서 건강체조 발표회와 마이산 건강걷기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군민이 함께 즐기고 참여하는 행사로, 10시에 건강체조발표회에 이어 11시 40분에 마이산 건강걷기대회가 진행된다.

건강체조발표회는 1년간 갈고닦은 실력을 발표하는 어르신들의 축제로 신청한 읍·면에서 8개팀 151명이 참

여한다.

이어 11시 40분부터 진행되는 마이산 건강걷기대회는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걷기 동아리 회원들과 진안군민들이 걷기를 통해 홍삼축제를 기념하고 건강생활실천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걷기대회 참가를 원하는 군민과 관광객들은 별도의 참가신청 없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간편한 복장으로 행사 당일 마이산 테마공원에서 나오면 되며 참가자에게 걷기대회 홍보품을 증정한다.

/진안=우태만 기자

지역 소식통

덕유산국립공원,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세뿔투구꽃개화

국립공원공단 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김현교)는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야생생물 II급인 세뿔투구꽃이 화려한 자태를 뽐내며 개화했다고 밝혔다.

세뿔투구꽃은 미나리아재비과의 여러해살이풀로 산기슭, 계곡 주변에서 자라는 한국 고유종으로, 꽃은 투구 모양으로 보통 9월 중·후순에 피며 일겨드랑이에서 나오는 총상 화서에 달린다.

관상화적인 가치가 높아 남획될 위험이 커서 2016년부터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생지를 보호하고 있으며, 야생생물보호단 등이 생육상태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다.

차화한 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국립공원 내에는 다양한 야생생물이 서식하고 있으므로 건전한 국립공원 탐방을 통하여 자연자원 보전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홍삼축제 기간 문화누리카드 가맹점 운영

진안군은 문화누리카드 이용 활성화를 위해 홍삼축제기간 10월 8일부터 10일까지 가맹점을 운영한다.

문화누리카드(통합문화이용권)사업은 소외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의 문화향유 증진을 위해 문화·관광·체육 분야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연 11만원의 금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문화누리카드 이용자는 진안홍삼축제기간 축제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금액(10만원, 5만원, 1만원, 5천원) 상품권으로 교환하여 축제를 즐길 수 있다.

홍삼축제장에서 진안의 특산물인 홍삼을 비롯하여 수삼, 버섯, 사과 등 지역 농산품과 문화상품 등을 문화누리카드로 만나볼 수 있다.

전춘성 군수는 "3년 만에 대면으로 개최되는 진안홍삼축제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지역 구성원 모두가 함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